

# 이재명, 10일 또 검찰 출석 '서면 진술'로 방어권 행사

### 검, 1차 조사 진술서 추가 질문...민주 "검찰 주중 출석 고집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토요일인 지난달 28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주말 출석을 주장한 이 대표와 주중 출석을 요구한 검찰은 그동안 협의를 거듭한 끝에 결국 금요일인 10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 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첫 소환) 당시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함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 조사까지 요구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차 조사 때 제출한 검찰 진술서 내용에 관한 추가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술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정진상 전 대표 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의 결제 서류 등을 제시하며 그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최근 배당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은 수사 진척 상황을 고려해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제출한 검찰 진술서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는 입장이라 1차 조사 때처럼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주주지, 특수목적법인(SPC)과 성남알앤디피에프비 등까지 포함해 압수수색 대상만 총 40여 곳, 전체 투입 인원은 18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또 경찰의 불송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검찰이 성남FC·대장동·쌍방울 등에 이어 백현동, 코나아이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당내 결집을 통해 장외 투쟁까지 나서고 있지만 이 대표의 검찰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록 민심의 피로도가 쌓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검찰 발 언론보도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전세사기 피해 방지 제도 입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野 "이상민 문책, 국회가 나설 때"

### 민주, 오늘 탄핵안 표결 추진

국민의힘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 불복', '정권 흔들기' 의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당위성을 거듭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대표 탄핵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가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재가 탄핵 요건들에

대해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라며 "정권 출범 직후부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끊임없이 제기해왔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본회의 상정권을 김 의장이 쥐고 있어 표결 여부 및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 때 보고됐으며 표결은 오는 9일이 의결 사항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며 "기다릴 만큼 기다린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소병철, 사회적 참사 유가족 회복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레갑)은 7일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정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가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현재 유가족에게 배치되는 전담공무원은 유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행동매뉴얼 등을

교육받지 않아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행동매뉴얼을 마련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유가족 의견이 존중되는 피해회복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공공요금 폭탄 책임론·양곡관리법 개정 공방

### 대정부질문 이틀째...추경호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논의 돼야"

7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은 쌀 생산과잉 시 정부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의 반대 입장에 대해 "쌀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정 장관의 의견에 충격"이라며 "국가와 정부는 국민들이 어려울 때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난방비·전기요금 폭탄' 논란과 관련, 정부 입각에서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올랐다면 문재인 정부

때 원전 발전량이 줄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30%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폭등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예측됨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현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경영효율화를 빌미로 가스공사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 이창양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질의에 "중앙정부도

빛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를 두고는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의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느냐"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무임승차 연령 상황과 관련해서는 "65세가 너무 낮다는 의견부터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는 의견 등 여러 이문이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봄에 떠나는 그립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